

TRADE BRIEF

통상연구실

이 준 원 수석연구원 02-6000-5342, jwlee138@kita.net
곽 동 철 연구원 02-6000-5351, kwakie@kita.net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

우리나라는 1967년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GATT 체제에 가입하면서 기존 체약국의 관세양허 혜택을 일괄적으로 받아 놀라운만한 교역규모 성장을 이룩하였다. 다자통상체제 안에서 서비스무역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등을 통해 다양한 통상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WTO 출범 이후 회원국 수의 증가로 수출상대국 및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DDA협상의 지연, 세계교역둔화 및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GATT 가입 50년 간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나라는 다자통상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다자통상체제에 기초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01. 한국의 GATT 가입 의의

- ◎ 1967년 4월 14일 GATT 가입이 승인되면서 한국은 71번째 체약국으로서 다자통상체제에 편입
 -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정부는 GATT 가입을 신청('66), 5개월 간의 신속한 협상을 거쳐 GATT 가입('67)
 - * 일본은 GATT 가입협상에 약 3년 소요('55.9.10. 가입), 중국은 GATT의 후신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에 약 15년 소요('01.12.11. 가입), 미국은 1948년 GATT 출범 시 원체약국

우리나라의 GATT 가입 과정

GATT 가입 논의 시작('50) → 가입협상 완료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내 비준실패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실시('62) → 가입협상 재개('65) → GATT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66.5.20.) → 12개 체약국과 관세협상 완료('66.12.2.) → GATT 정식가입('67.4.14.)

- ◎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통상체제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체약국의 관세양허 혜택을 일괄적으로 받게 되었고 각 국의 통상정보를 공유하게 됨
 - 가입 즉시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되어 기존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관세양허 혜택을 받아 선진국 수출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 양자협상 없이 전 체약국과 일괄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으며 다자통상포럼인 GATT를 통해 세계통상정보 획득이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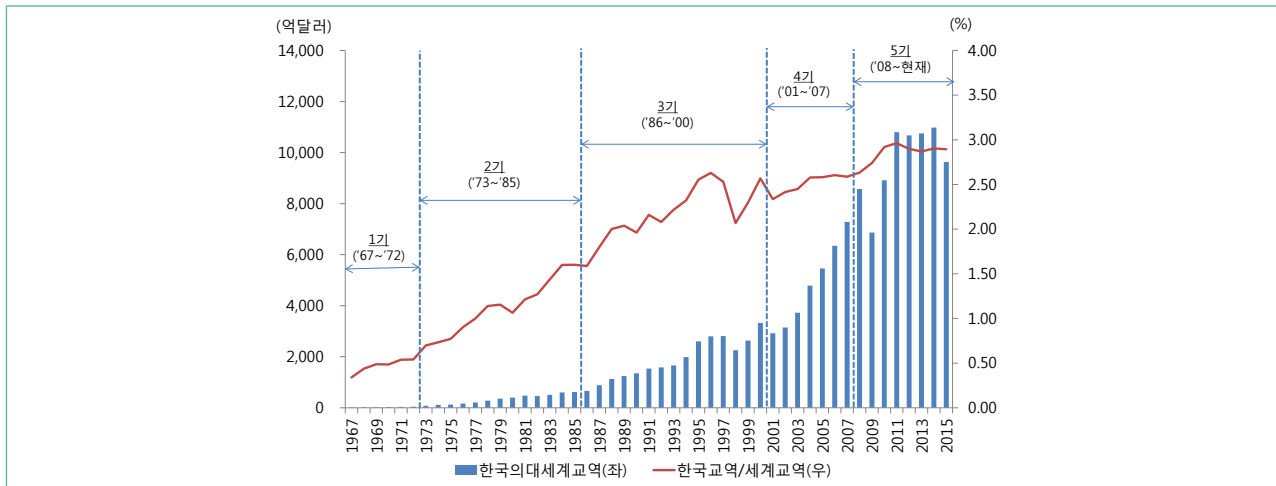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다자통상체제의 최대수혜자임

- 다자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양허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선진국의 차별적 수입제한조치가 제한됨에 따라 한국무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

- GATT 가입 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 시기별 우리나라 교역 연평균 증가율(%) : ('67~'72) 25.8 → ('73~'85) 19.2 → ('86~'00) 12.2 → ('01~'07) 16.5 → ('08~'16) 0.6

GATT 가입후 한국의 대세계 교역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비차별원칙, 투명성원칙, 법의 지배를 기본으로 무역자유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조하는 다자통상체제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GATT 1947 서문과 WTO 설립협정 서문에 나타난 다자통상체제의 목적과 원칙

(목적) 무역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 감축, 차별대우 철폐, 개도국 우대, 지속 가능한 개발, 자원의 최적이용

(원칙)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등 비차별원칙, 투명성원칙, 상호호혜주의원칙, 법의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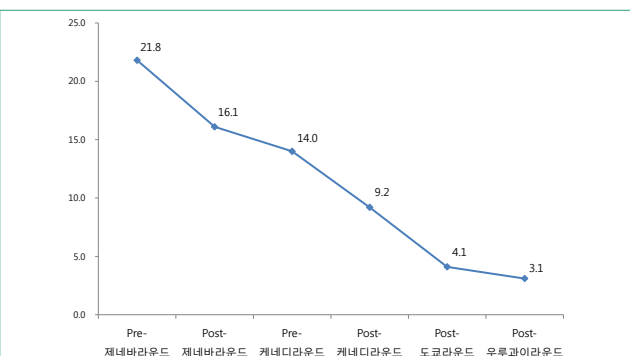
- 1948년 GATT 출범 이래로 세계 평균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38% 감축된 케네디라운드부터 GATT에 가입하여,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음

GATT 출범 이후 관세 감축률 추이

이행기간	GATT 라운드	감축률
1948	제네바 회의(1947)	-26%
1950	안시 회의(1949)	-3%
1952	토키 회의(1950-51)	-4%
1956-58	제네바 회의(1955-56)	-3%
1962-64	딜런라운드(1961-62)	-4%
1968-72	케네디라운드(1964-67)	-38%
1980-87	도쿄라운드(1973-79)	-33%
1995-99	우루과이라운드(1986-94)	-38%

주 : 1948~1958년까지의 감축률은 미국관세율 기준
자료 : WTO(2007)

GATT 출범 이후 주요국 평균관세율 추이



주 : 주요국은 미국, EU, 일본임
자료 : Bown and Irwin(2015)

02. 제1기 : GATT 가입 초기(1967년~1972년)

- ◎ 가입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이 최혜국대우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초석이 마련됨
 - * 케네디라운드 당시 GATT 체약국들은 선형관세인하방식 및 품목별 협상을 통해 평균 38%의 관세인하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관세양허는 전 체약국에 적용됨
- ◎ GATT 가입을 위해 한국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였지만 미미한 수준
 - 가입당시 총 60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 하였으며 이중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 41개 품목에서 현 관세 수준으로 양허, 2개 품목에서 양허관세의 상한을 설정¹⁾
- ◎ 1기 동안 우리나라의 교역증가율은 세계교역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점차 높아짐
 - 우리나라의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5.8%이고, 세계 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14.6%임
 - * 우리나라 연도별 교역증가율(%) : ('67) 36.2→('68) 45.7→('69) 27.5→('70) 15.2→('71) 22.8→('72) 19.8
 - GATT 가입원년인 1967년 한국은 세계 66위 수출국이였지만, 1972년에는 44위로 22계단 뛰어오름
- ◎ 1기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성장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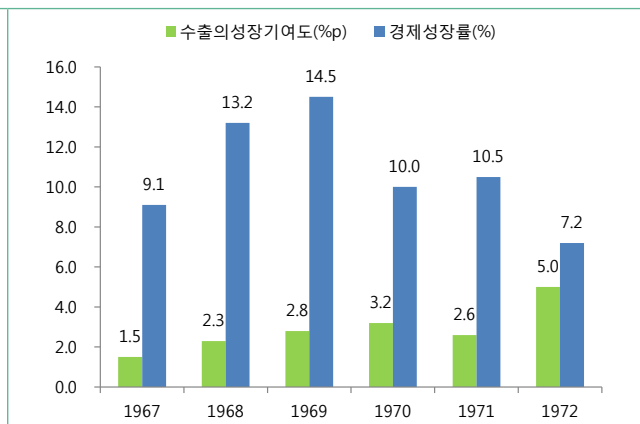
세계 수출국 순위 비교

(억 달러)

순 위	1967		순 위	1972	
	국가	수출		국가	수출
1	미국	309	1	미국	492
2	독일	218	2	독일	467
3	영국	145	3	일본	291
4	프랑스	115	4	프랑스	264
5	캐나다	110	5	영국	240
⋮					
65	코트디부아르	3.3	43	멕시코	16.9
66	한국	3.2	44	한국	16.3

자료 : WTO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03. 제2기 :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1973년~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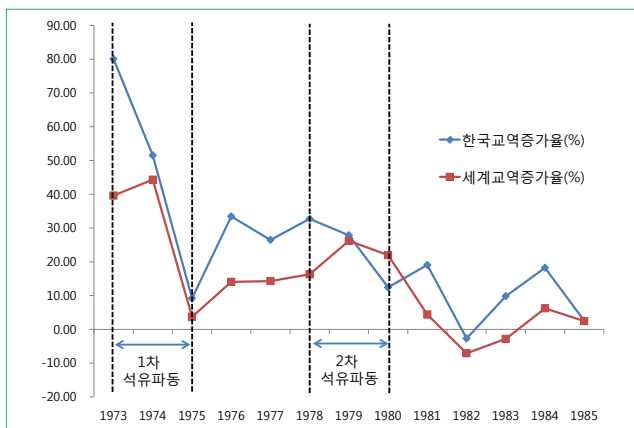
- ◎ 도쿄라운드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양허협상 및 규범협상에 적극 참여하였고 1981년에는 경제발전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의 일반특혜관세 부여대상에서 졸업함
 - 657개 항목에 대해 관세양허 하였으며 이는 총 관세품목의 10%에 해당하고 총수입의 30%에 달함
 - 관세평가협정과 보조금협상에 참여하였고 도쿄라운드 이후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1980년), 기술장벽협정(1980년), 관세평가협정(1981년)에 가입

1) 17개 관세양허 품목의 1965년 수입규모는 당해 우리나라 총수입의 0.2%로 미미

● 도쿄라운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이전(1973년~1985년 : 2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은 세계교역증가율을 상회함

- 2기 동안 우리나라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9.2%이고, 세계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11.2%임
 - * 2기 기간에 2번의 오일쇼크('73~'75, '78~'80)가 있었지만, 대중동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교역은 1980년을 제외하고 세계교역증가율을 상회함
 - * 대중동 수출증감률(%) : ('73년) 134 → ('74년) 174, ('79년) 10 → ('80년) 61²⁾
- 2기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37위(1973년)에서 13위(1985년)로 24계단 뛰어오름
 - * 1985년에 세계수출 13위에 진입하였으며, 수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섬

한국교역과 세계교역 증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 수출국 순위 비교

(억 달러)

순위	1973		순위	1985	
	국가	수출		국가	수출
1	미국	708	1	미국	2,188
2	독일	676	2	독일	1,839
3	일본	370	3	일본	1,772
4	프랑스	367	4	프랑스	1,017
5	영국	296	5	영국	1,013
⋮					
36	아르헨티나	32.7	12	스웨덴	304.6
37	한국	32.2	13	한국	3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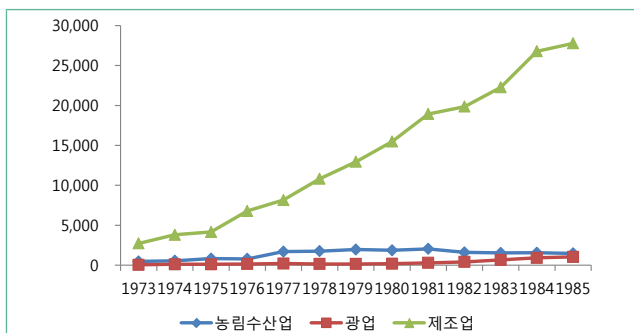
자료 : WTO

● 우리나라는 GATT 가입 후 도쿄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관세 양허 협상에 참여하였고, 도쿄라운드 타결 결과 총 657개의 항목에 대한 관세가 양허되어 우리나라의 교역도 크게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크게 증가
 - * 산업별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73~'85) : (농림수산업) 수출 10.0% 수입 6.9%, (광업) 수출 32.5% 수입 31.3%, (제조업) 수출 21.4% 수입 19.1%

한국의 산업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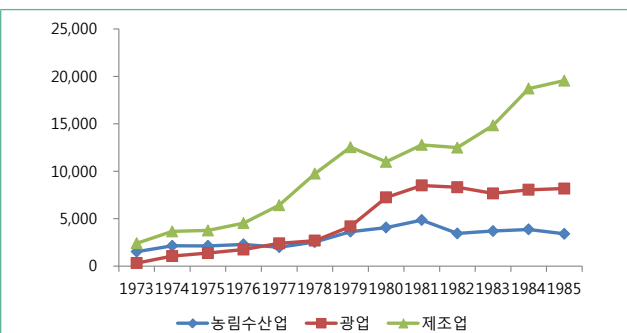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산업별 수입 추이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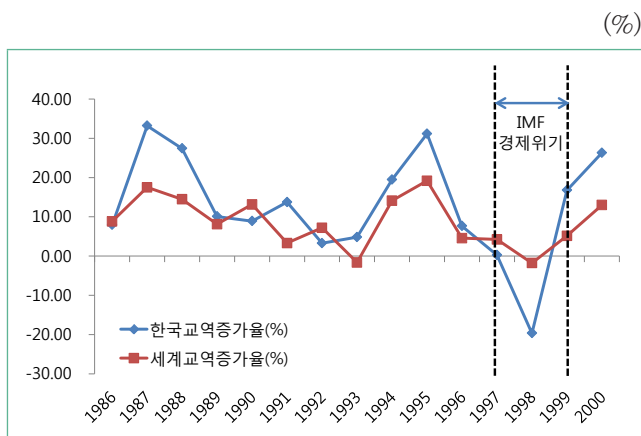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한국무역협회(2016), “한국무역 70년의 발자취”, Trade Brief

04. 제3기 :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출범(1986년~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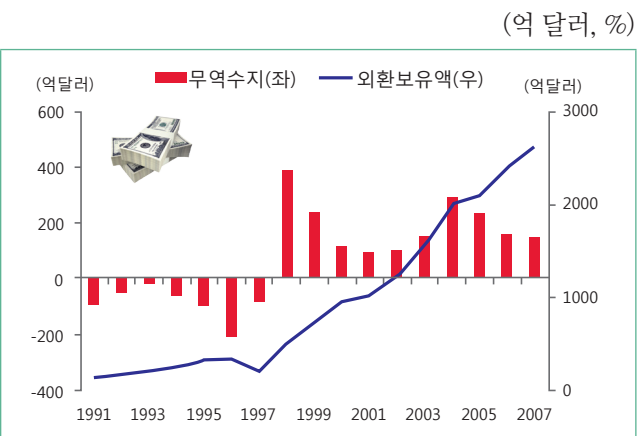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무역을 관할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는 기존 GATT가 관할하던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도 관할대상으로 포함하며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위생 및 식물 위생(SPS), 기술무역장벽(TBT), 분쟁해결제도 등에 관련한 규범도 한층 강화됨
- 3기(1986년~2000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역증가율은 세계교역증가율을 상회함
 - 3기 동안 우리나라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이고, 세계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8.4%임
- IMF 위환 위기 당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보³⁾하여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후 교역은 다시 크게 증가

한국교역과 세계교역 증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6),
“한국무역 70년의 발자취”에서 재인용

- GATT 시절 우리정부의 분쟁해결제도 경험은 제한적이었으나 WTO 설립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고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준수
 -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GATT 통상분쟁사례는 총 3건에 불과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GATT 통상분쟁 사례(1967~1994)

사건명	제소국	피소국	비고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호주, 뉴질랜드, 미국	한국	국제수지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제한 조치가 철폐됨
폴리아세틸 레진 반덤핑관세 사건	미국	한국	초기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의 중요한 선례를 마련
한국산 TV 사건	한국	EC	우리가 GATT에 제소한 첫 통상분쟁이었으나 상호합의 하 패널설치 이전에 분쟁종결

출처 : Ahn(2003)을 기초로 저자 작성

3) 한국무역협회(2016), “한국무역 70년의 발자취”, Trade Brief

-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는 2016년 현재 총 33건의 분쟁에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제3국으로도 분쟁해결절차에 활발히 참여하여 통상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 * 우리나라는 10번째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빈번하게 활용 : 미국(243건), EU(181건), 캐나다(54건), 중국(54건), 인도(47건), 브라질(46건), 아르헨티나(42건), 일본(38건), 멕시코(37건)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통상분쟁 현황(1995~2016)

시기	유형별		품목별		
	제소건수	피소건수*	농산물**	공산물**	정부조달
1995~1999	3	11	4	9	1
2000~2016	14	5	4	16	-
총계	17	16	8	25	1

주 : * DS161/169(쇠고기 수입규제 사건)와 DS75/84(주세 사건)은 각 2건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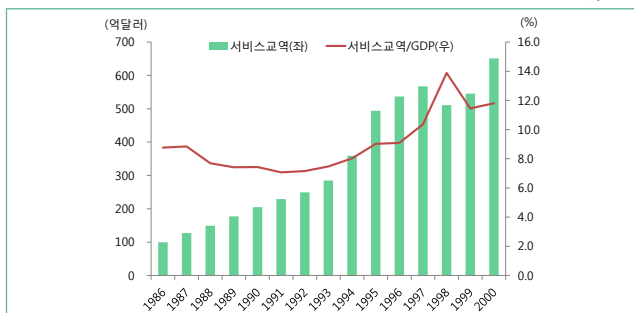
** DS217(Byrd 법안 사건)은 농산물, 공산물 모두 해당되어 중복산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분쟁해결절차에서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우리 정부는 1997년 ‘미국-컬러TV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
- ◎ 점진적인 서비스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지적재산권 보장을 통한 무역성장을 추구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다자통상협상 최초로 타결
- 서비스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은 비약적으로 성장
 - *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 연평균 증가율(’86~’00)은 14.3%이며, 동 기간 GDP 대비 서비스교역의 비중은 (’86) 8.8% → (’00) 11.8%로 증가함
- ◎ 정보기술협정 I (ITA I)의 타결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IT 제품의 수출에 탄력
 - ITA I은 1996년 12월 13일 29개국 간 협정이 타결되었고, 현재는 81개 회원국이 가입
 - ITA I로 인해 해당 IT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인하된 관세규모는 2013년 기준 1조 6000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⁴⁾
 - ITA I 타결 이후 우리나라 ICT 품목의 수출은 전체 수출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며,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
 - * 1996년 ITA 타결 이후 우리나라의 ICT 품목 수출은 1996년 약 263억 달러에서 2016년 약 1,268억 달러로 연평균 8.2% 증가함

한국의 서비스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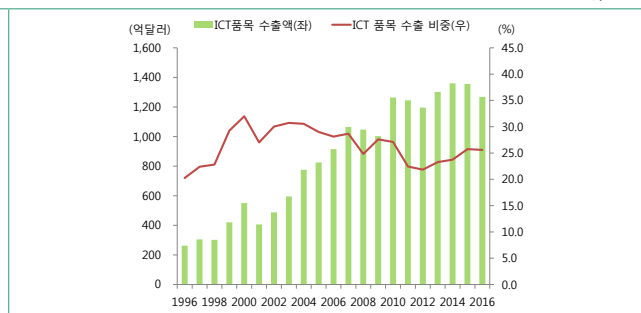
(억 달러, %)



자료 : World Bank

한국 ICT 품목 수출 추이

(억 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taintro_e.htm

◎ 1997년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으로 우리 기업도 외국정부조달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현지기업과 경쟁하게 됨

- 전 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015년 현재 연간 약 1조 7000억 달러로 추정⁵⁾되며 신규 가입국이 추가되면서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기업에게도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05. 제4기 : 중국의 등장 및 FTA시대의 개막(2001년~2007년)

◎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부터 중국은 WTO 가입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2001년 11월 10일 WTO에 정식으로 가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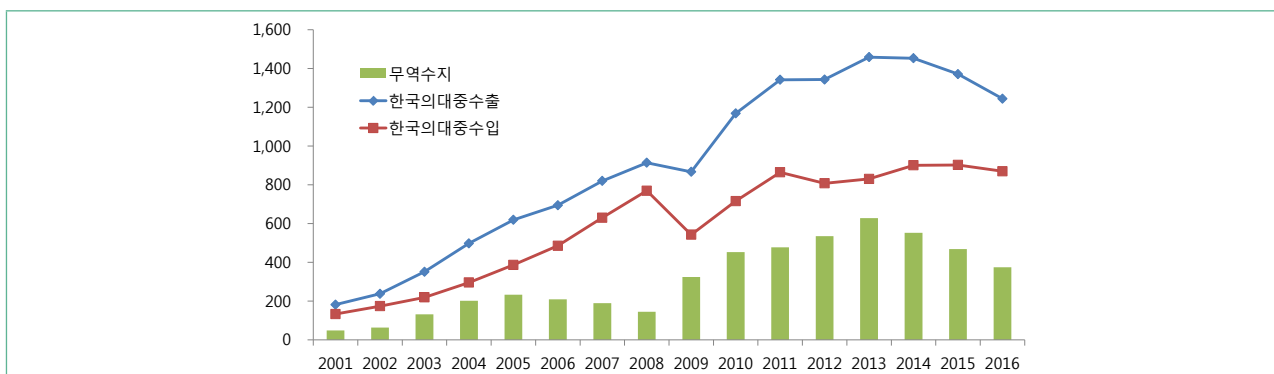
- 중국의 WTO가입은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제고와 교역구조 전환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세계무역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아시아 주요국들의 최대교역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
 -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10년에는 10대 무역국 중 아시아 4개국(중국, 일본, 한국, 홍콩)이 포함됨
 - * 2003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 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또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

- 2001~2016년간 한국의 대중 교역은 연평균 13.5%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326억 달러가 증가
 - * 대중 교역 연평균 증가율(%) : (대중수출)13.7, (대중수입)13.3 (2001~2016년 기준)
- 2001년 대중수출은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 품목이 대부분이었으나, 2007년에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 IT 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변화
- 2001년 대비 2007년 대중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품목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임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5)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20y_e/gpa_brochure2015_e.pdf

한국의 대중국 주요수출품목

(백만 달러)

순위	2001년		2007년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석유제품	1,601	반도체	9,261
2	합성수지	1,58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072
3	철강판	1,086	컴퓨터	5,928
4	전자관	979	무선통신기기	5,684
5	컴퓨터	763	석유제품	5,209
6	가죽	670	합성수지	4,563
7	석유화학 합성연료	650	광학기기	3,627
8	기타직물	566	석유화학 합성원료	2,957
9	무선통신기기	502	석유화학 중간원료	2,826
10	음향기기	492	철강판	2,436
	10개품목	8,894 (48.9)	10개품목	48,563 (59.2)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중국 주요 흑자 품목

(백만 달러)

순위	품목	2001 무역수지	2007 무역수지	차이
1	반도체	-66	5,050	5,116
2	무선통신기기	229	3,867	3,638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6	3,446	3,552
4	광학기기	-22	3,286	3,308
5	석유제품	1263	4,543	3,280
6	합성수지	1551	4,276	2,725
7	석유화학 합성원료	650	2,956	2,306
8	석유화학 중간원료	369	2,575	2,206
9	자동차부품	63	1,687	1,624
10	기초유분	342	1,906	1,564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개발도상국 및 구공산권 국가의 WTO 가입으로 다자통상체제의 외연 확대

- 라트비아('99), 리투아니아('01), 중국('01), 베트남('07) 등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이후 러시아('12)도 신규 가입하여 WTO 회원국 수는 2017년 현재 164개국에 달함

● 우리의 교역상대국도 다변화되고 수출품목도 다양화되어 안정적인 수출성장에 기여

- 수출 상위 10개국에 대한 비중은 1972년 90.9%에서 2007년에 62.4%로 하락하면서 수출 상대국이 다변화
- 수출 품목은 1972년에는 경공업 품목이 대부분이었지만, 2007년에는 IT 제품 등 첨단제품들의 수출이 두드러지면서 수출품목이 다변화

주요 수출 상대국 추이

(백만 달러, 비중 %)

순위	1972년		2007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미국	759	중국	81,985
2	일본	408	미국	45,766
3	홍콩	72	일본	26,370
4	캐나다	59	홍콩	18,654
5	독일	51	대만	13,027
6	네덜란드	33	싱가포르	11,949
7	영국	29	독일	11,543
8	인도네시아	21	러시아	8,088
9	대만	16	멕시코	7,482
10	벨기에	13	영국	6,870
	상위10개국	1,462 (90.9)	상위10개국	160,977 (62.4)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출품목 추이

(백만 달러, 비중 %)

순위	1972년		2007년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편물제품	231	반도체	39,045
2	합판	154	자동차	37,284
3	가발	74	무선통신기기	30,458
4	신발류	5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7,777
5	생사	54	석유제품	23,966
6	면직물	3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7,299
7	활선어	28	컴퓨터	13,808
8	중석	10	합성수지	13,000
9	철광석	5	자동차부품	12,436
10	오징어	4	철강판	12,375
	10개품목	649 (79.0)	10개품목	227,448 (61.2)

주: MTI 3단위 기준, 1972년은 SITC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다자통상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우리나라는 대안으로서 2000년대 초부터 동시다발적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 전략을 채택하여 공세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59개국과 FTA를 타결, 이중 53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 중
 - *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를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76.7%,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8.0%임⁶⁾
- 우리나라의 FTA 발효 대상국 수출 비중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급격하게 증가

한국의 FTA 발효 대상국에 대한 교역 추이

(백만 달러, %)

FTA발효국	2004	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칠레	2,642	5,379	7,299	7,168	7,239	7,146	7,116	6,893	6,144	5,316
싱가포르	10,114	15,376	18,809	23,094	29,806	32,564	32,658	35,053	22,953	19,265
EFTA	2,657	3,926	4,676	9,221	6,995	9,208	8,850	7,653	11,425	8,155
ASEAN	46,407	61,809	71,858	97,294	124,922	131,122	135,336	137,995	119,855	118,837
인도	5,482	9,174	11,224	17,109	20,548	18,843	17,556	18,057	16,270	15,786
EU	62,017	78,511	92,806	92,227	103,150	99,815	105,087	114,052	105,278	98,513
페루	528	1,035	1,506	1,983	3,318	3,112	3,423	2,825	2,353	2,449
미국	71,632	76,838	82,985	90,219	100,777	101,866	103,564	115,568	113,857	109,678
터키	2,460	3,230	4,369	4,269	5,876	5,224	6,350	7,320	7,039	6,127
호주	10,816	16,001	17,924	27,098	34,480	32,238	30,348	30,696	27,268	22,677
캐나다	5,572	6,712	6,761	8,453	11,540	10,075	9,920	10,359	8,606	8,827
중국	79,348	118,016	145,013	188,411	220,617	215,107	228,922	235,370	227,374	211,413
뉴질랜드	1,499	1,640	1,870	2,094	2,578	2,804	2,886	3,257	2,488	2,403
콜롬비아	566	1,118	1,237	1,821	1,994	1,882	1,549	2,117	1,452	1,286
발효국 비중	0.6	3.9	11.5	14.7	24.7	34.8	36.0	40.2	67.3	67.8
전체	478,307	634,847	728,335	891,596	1,079,627	1,067,454	1,075,218	1,098,179	963,255	901,619

주 : 음영은 한국과 FTA를 발효한 이후 기간을 표시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06. 제5기 : 글로벌 금융위기 및 흔들리는 다자통상체제(2008년~현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부터 세계 교역이 둔화 내지 정체 상태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무역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

- 세계교역둔화의 요인으로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이 작용⁷⁾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은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4.1%를 기록하였음
 - * 2012~2016년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전년대비%) : ('12) -1.1, ('13) 0.7, ('14) 2.1, ('15) -12.3, ('16) -6.4
- 또한, 2012년부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 수출의 성장기여율 추이(%) : ('12) 93.9, ('13) 77.3, ('14) 16.6, ('15) -10.4, ('16) 37.1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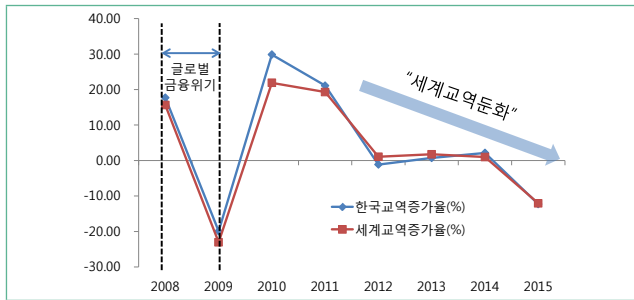
6) (한국 GDP(2015년)+상대국 GDP(2015년))/세계 GDP(2015년) 기준

7) 한국무역협회(2016), “최근 세계무역 부진 원인과 전망”, Trade Brief

8) $\Delta \text{GDP} / \Delta \text{수출} (\%)$

한국교역과 세계교역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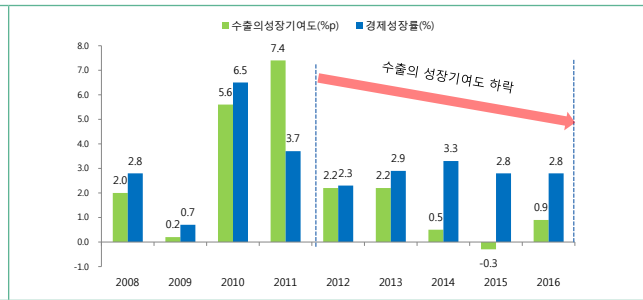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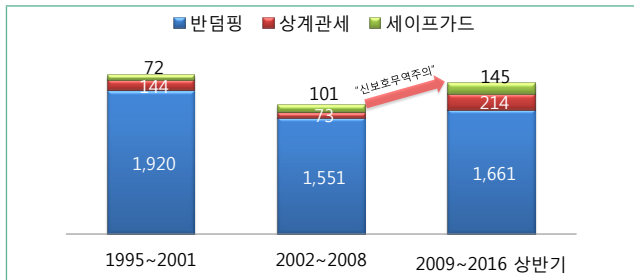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국 국내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추이

(건수)



자료 : WTO

對韓 수입규제 및 조사 현황

(건수)

	반덤핑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합계
규제 중 ('91~'17.3.)	103	6	27	136
조사 중 ('14~'17.3.)	35	1	14	50
합계	138	7	41	18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ntb.kita.net)

- 또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자통상체제보다는 FTA를 기반으로 한 양자·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게 됨
 - 우리나라 또한 2004년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거대경제권(미국, EU, 중국)과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에 적응하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반면, DDA 협상에서도 분야별로 협상이 타결 및 발효되어 다자통상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다자통상체제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이 타결되어 우리나라 IT제품 수출에 재도약의 계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됨
 -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ITA 확대협상이 타결('15.12.16.)되어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가 향후 3년에 걸쳐 완전 철폐됨
 - * 201개 IT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품목의 교역규모는 연간 약 1조 3,0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⁹⁾
 -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¹⁰⁾로 통관절차 상 형식주의(red tape)가 대폭 감소하여 개발도상 회원국과의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9)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nftec_e.htm

10) 발리패키지의 일환으로 논의된 TFA가 2017년 2월 22일 정식 발효

- WTO는 TFA 발효로 상품전체의 평균무역비용이 14.3% 절감(공산품 18%, 농산품 10.4%) 되고 전 세계 교역이 연간 1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¹¹⁾

* 교역상품의 운송, 반출, 통관을 촉진하는 내용 및 세관 및 관련부처 간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 분야에서의 기술원조 및 능력배양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개정 GPA가 2014년 4월 발효(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외국정부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2016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GPA에 가입하면서 GPA 가입국 수는 47개국으로 증가
 - 개정 GPA의 양허 확대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1,000억 달러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¹²⁾

◎ WTO 상소기구 재판관¹³⁾을 배출함으로써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장승화 서울대 교수('12~'16), 김현중 한국외대 교수('16~현재)

07.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도전과 향후과제

◎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 다자통상체제가 DDA를 기점으로 큰 도전에 직면

-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 감축 등을 둘러싸고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2001년 시작한 DDA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함
- 글로벌 무역불균형 심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신보호무역주의에 다자통상체제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GATT/WTO 체제에 대한 신뢰 감소
- 특히, 최근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과 사회주의경제체제인 중국 간 통상갈등으로 다자통상체제의 미래가 불확실함
- DDA 협상 지연에 실망한 회원국들이 다자통상협상보다 양자·지역통상협상을 우선시하면서 다자주의와 양자·지역주의의 공존가능성이 문제됨
- 특정 의제에 관하여 비교적 타결이 수월한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 시도되고 있지만 참여국 간 갈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임

◎ 세계화의 진전과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과제에 다자통상체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

- 경쟁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국영기업정책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다자통상체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 글로벌가치사슬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훈련과 역량개발 등을 통한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야한다는 요구 증가
-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데이터 현지화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예상되는 만큼 다자통상체제는 디지털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논의를 주도해야 함

11) WTO(2015), "The WTO at Twenty : Challenges and achievements"

12)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gpro_04dec13_e.htm

13) WTO 상소기구는 WTO에 제소된 통상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며 4년 임기(연임 가능)의 7인 재판관으로 구성됨

08. 한국의 GATT 가입 50년 평가와 시사점

- ◎ 우리나라는 GATT 가입 이후 50년 동안 교역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수출상대국 및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교역 시장을 확보
 - 우리나라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통상체제에 가입하면서 기존 체약국의 관세 양허 혜택을 일괄적으로 받아 교역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
 - 전통적인 상품교역 분야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GATS, ITA, GPA 등 분야별 협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통상체제의 수혜를 받음
 - 또한 WTO 출범 이후 개발도상국 및 구공산권 국가의 WTO 가입, 중국의 WTO 가입 등 회원국 수가 증가하면서 수출상대국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품목 다변화도 가능
- ◎ GATT/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통상분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
- ◎ GATT 가입 50년 동안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나라는 다자통상협상을 주도하여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다자통상체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다자통상협상을 주도해야 함
- ◎ 새로운 통상협상 모델인 양자·지역통상협상과 분야별 통상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야 함
 - 역내포괄적무역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Mega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무역협정(TiSA) 및 환경상품협정(EGA) 등 분야별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야 함
- ◎ 우리나라는 GATT/WTO 체제 내에서 대외무역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다자통상체제의 유지에 국가의 통상이익이 달려있는 만큼 다자통상협상에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를 선도하여 신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극복해야 함